

제 59호

서기 1998년(단기433년) 1월 26 일(월요일)발행
 서기 199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0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 팩스:(02)243-1073



發行人: 金相勳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 特別市 東大門區 徽慶1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244-3717. fax: (0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中始祖 忠烈公 時祭奉行

지난 11월 8일(음10월9일) 京鄉各地에서 200余 後孫들이 參席하여 午前 9時 정각에 壁秀 賢宗의 執禮로 엄숙히 시제를 봉행하였다. 初獻官은 相勳 大宗會 會長, 亞獻官은 都評議公派會長인 聲秀 賢宗이, 終獻官은 按廉使公派 在澤 賢宗이 獻爵을 하였다. 할아버님 時享奉祀를 마친 뒤 飲水齋로 내려와 飲福을 간단히 하고 이어서 檜谷洞 할머님 時享을 奉行해야 하는

고로 대기시킨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회곡동으로 가 12시 정각에 할머님 壇墓所에서 時祭를 奉行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宗事中 重要事項만을 會長님의 人事와 아울러 總務가 간단히 報告를 하였다.

할머님 시향에 헌관은 初獻官 相勳 會長, 亞獻官에 提學公派會長 鶴應 賢宗이, 終獻官은 密直司使公派 裕日 賢宗이 각각 獻爵하였다.



新 年 辭

會 長
金 相 勳



戊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全國에 게신 宗員여러분들께 世배 올립니다. 새해에는 健康하시고 宅內均安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順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통상 묵은 해를 보내면서 다사다난 했던 한 해를 보낸다고 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희망찬 새해를 맞는다고 들 하는데 금년의 세모는 그 말들이 그대로 꼭 들어 맞는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경험도 갖게 되었는데 앞의 일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하는, 어찌하면 허망하기까지 한 일이기도 하고, 뒤의 일은 새로운 경험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갖게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IMF로 표 현되는 금융위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어찌하면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맞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지도자들의 말을 믿고 하라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위기를 맞게 되기까지하였고 수입도 반으로 줄었으니 억울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위와 같은 위기를 몰고 온 일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도 같습니다. 어찌하면 우리 모두는 사회 곳곳에 쌓여 있던 거품에 길들여지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또, 위와 같은 거품을 조금씩 보태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알 수 없는 일

입니다. 온 나라가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떠들썩한 것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은 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도,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을런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는 각오도 새롭게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품이 없는 사회란 진실이 통용되는 사회, 있는 그대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신용이 쌓여가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적을 선전하기 위하여 허위 통계를 양산하던가 속은 굶아 있으면서 걸치장만 요란하게 하는 일 등은 이제 그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라의 위기도 극복하고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건 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우리의 '새해의 희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종회로서 지난 1년은 '아무일도 없었던 한 해'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게 말하면 '무사'라고 할 수 있으나 나쁘게 말하면 '안일'한 한 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한 해였으므로 그냥 쉬었다고 생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새해에는 작은 일로부터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우리 대종회를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신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여 오신 종원 여러분의 희망이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종회에 대한 사랑과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신년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1998년 戊寅元旦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相勳

謹 賀 新 年

顧 問

- 泰倫 密直司使公派 載鴻 郡事公派
- 在哲 郡事公派 元會 郡事公派
- 東哲 副使公派 在洪 文溫公派
- 在龍 文溫公派 在應 文溫公派
- 用秀 都評議公派 泰祚 都評議公派
- 相溫 提學公派 相蒙 提學公派
- 泰珍 提學公派 在華 按廉使公派
- 在德 按廉使公派 思興 按廉使公派
- 元卿 按廉使公派 好振 按廉使公派
- 在元 翼元公派 在聲 翼元公派
- 在憲 翼元公派 在弓 翼元公派
- 吉成 翼元公派 明會 翼元公派

- 明燮 翼元公派 信 翼元公派
- 學永 書雲觀正公派

本部任員

- 泰亨 翼元公派 相祺 提學公派
- 斗會 按廉使公派 容學 翼元公派
- 洙栢 翼元公派 榮國 文溫公派

執行部

命會 翼元公派

各派宗會長

- 惠默.密直司使公派
- 鳳來 開城尹公派
- 在錫 郡事公派 根成 典書公派
- 在殷 副使公派 在承 文溫公派

- 在煥 安靖公派 聲秀 都評議公派
- 在權 大護軍公派 鶴應 提學公派
- 德允 判三司公派 章會 按廉使公派
- 璨會 翼元公派 嗽永 書雲觀正公派
- 允會 正儀公派

理 事

- 炳錄 密直司使公派
- 相國 開城尹公派
- 潤洙 郡事公派 世鏞 郡事公派
- 承會 典書公派 圭恒 副事公派
- 琮會 文溫公派 光道 文溫公派
- 鶴秀 都評議公派 廷秀 都評議公派

- 鳳會 都評議公派 相會 大護軍公派
- 得榮 提學公派 相喆 提學公派
- 泰燮 提學公派 圭馨 提學公派
- 道演 按廉使公派 在澤 按廉使公派
- 演玉 按廉使公派 昌會 按廉使公派
- 中鉉 按廉使公派 聖會 按廉使公派
- 在均 按廉使公派 榮俊 翼元公派
- 在起 翼元公派 在溶 翼元公派
- 俊會 翼元公派 先會 翼元公派
- 在光 翼元公派 恒植 翼元公派
- 仁鍾 翼元公派 容世 翼元公派
- 元九 翼元公派 圭冕 書雲觀正公派
- 範植 正儀公派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相勳 謹拜

文英公 時祭奉行

지난 11월 6일(음10월 7일) 安養市 冠陽洞 墓所에서 70여 後孫들이 참석하여 容世 賢宗의 執禮로 엄숙히 시제를 봉행하였다.

文英公 할아버님은 忠烈公 할아버님의 셋째 아드님이시며 諱恂이시고 提學公, 判三司公, 按廉使公, 翼元公, 書雲觀正公 五派에서 奉祀한다. 당초는 문영공 할아버님 曾孫이 일곱 분이시나 判事公 諱士謙, 觀察事公 諱士安 두 분께서 後嗣가 없어 現五派만이 承繼하고 있다.

이 날 獻官은 初獻官 提學公派會長 鶴應 賢宗, 亞獻官은 文英公 宗會長 道演 賢宗이, 終獻官은 翼元公派 承默 賢宗이 獻爵했다.

密直司使公 諱七祐 할아버님 時祭奉行

지난 10월 26일 密直司使公 時祭奉 후를 後孫 30여명이 참석하여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 날 특별히 대중회 相勳 회장님과 대중회 이사인 聖會 賢宗이 참석하여 과총회장 應默 현종을 비롯 중인 모두는 고마운 마음으로 맞이하며 獻官을 分榜함에 있어 應會 현종이 初獻官을, 亞獻官은 大宗會長을, 終獻官엔 聖會 이사로 분방을 하여 대중회 총무의 執禮로 正午에 享祀를 올리고 墓庭에서 오손도손 둘러 앉아 飲福禮를 겸하여 준비해 온 점심식사를 하며 談笑를 나눈 뒤 2 시경 귀가길에 올랐다.

文溫公 諱九容 時祭奉行

지난 10월 31일(음10월 1일) 抱川郡 蒼水面 伍佳里에 모셔 있는 文溫公의 祖 諱承澤과 考諱昂 그리고 문온공 3대의 設壇에서 시제를 엄숙히 봉행하였다. 그리고 오후엔 佳陽里로 와서 문온공의 아드님 明理, 孫 季友, 曾孫 自塾 三대의 시제를 봉행하였는데 이날 대중회에서는 斗會 부회장이 참례하였다.

文溫公派에서는 매년 先祖의 시향을 올리고 곧바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 회장의 유고로 결산보고를 한 후 회장 選任이 있었다. 새 회장엔 宗人 만장일치로 前會長 在承 현종을 選任可決하였다.

이 날 獻官은 다음과 같다. 初獻官은 琮會 현종을, 亞獻官은 대중회 斗會 부회장이, 終獻官에는 光道 현종이 헌작하였다.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

開城尹公 諱七霖

할아버님 時祭奉行

지난 10월 12일(음 9월 11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지월리 壇墓所에서 30여 후손들이 참석하여 시제를 엄숙히 奉享하였다. 이날 대중회 相勳 회장님과 郡事公派會長 在錫 현종도 參禮하여 獻官分榜을 初獻官은 派宗會長 鳳來 현종을, 亞獻官은 대중회 相勳 회장님을, 終獻官에는 郡事公派會長 在錫 현종을 분방하여 헌작하였다.

祭禮를 마친 다음 感謝牌와 孝婦賞授與式이 있었는데, 지난번 康津郡 鵲川面 土馬里 남산에 모셔 있는 忠烈公 할아버님의 長子 諱植이하 3대의 위선사업에 가장 노고가 많은 在錫 현종께 감사패를 수여하고, 다음으로 두 분의 孝婦에게 효부상을 수여하였는데 효부상을 받은 宗婦는 相明 현종의 子婦 鄭允蘭 女史와 仲給 현종의 子婦 李敏淑 女史이다.

提學公 諱益達 時祭奉行

지난 11월 5일(음 10월 6일)은 提學公의 시제날이다. 그러나 제학공의 할아버님 文肅公 諱永暉 考 上洛伯公 諱縝 등 위 二代와 提學公의 아들 司諫公 顧, 손자 監察公 孟廉, 증손 主簿公 哲甸, 현손 承旨公 壽享 이렇게 提學公의 위로 二代와 아래로 四代, 일곱 분의 先祖時享을 文肅公 上洛伯公 提學公 세 어른의 之壇에서 時享을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 날 享祀에 대중회 총무 命會가 회장을 대신하여 참례하였다. 이날 享祀의 獻官은 다음과 같다.

文肅公 上洛伯公 提學公 獻官, 初獻 泰完, 亞獻 道演, 終獻 鳳植.

司諫公 監察公 獻官, 初獻 用應, 亞獻 命會, 終獻 泰燮.

主簿公 承旨公 獻官, 初獻 龍會, 亞獻 寅應, 終獻 泰成.

執禮는 提學公派會長 鶴應, 大祝은 前會長인 相喆 현종께서 해 주셨다.

통상회비 납입자 명단 ('97.10.1~12.31)

翼元公派: 영희, 경중, 수학, 명희, 상운, 대희, 준희, 점영, 성묵, 노수, 재천, 재학, 흥묵, 재훈.

按廉使公派: 경준, 영희, 진희, 준현, 태현, 영준, 태석.

密直司使公派: 중희, 영웅, 용금, 재국.

提學公派: 상대, 재철, 원식, 상운.

都評議公派: 호석.

文溫公派: 재용, 한준, 정희, 명희.

正義公派: 봉해, 재성, 수일, 종희.

書雲觀正公派: 재순.

副使公派: 호수.

典書公派: 용복.

郡事公派: 재규.

派未祥: 배봉, 수대, 찬영, 중환, 중규, 용득, 수일, 영득, 우경, 선희, 중식, 용식, 용규, 후묵, 재현, 광희.

計 880,000원

贊助者名單

('97.10.1~12.31)

十萬圓: 봉희(翼), 길성(翼), 익수(郡), 원경(按).

翼元公 諱士衡 時祭奉行

지난 11월 7일(음 10월 8일) 200여 후손들이 참석하여 엄숙히 시제를 봉행하였다.

금년에는 사정에 의하여 시제일을 양력 10월 3일 개천절 날이었던 것을 11월 8일로 일정을 바꾸어 享祀를 奉行하였다.

이 날 대중회에서는 斗會 부회장이

참례하였고 提學公派, 按廉使公派에서도 많은 祭官이 參禮하여 종친간의 敦睦이 한층 더 높아 훈훈하였다. 이날 獻官은 다음과 같다.

翼元公 獻官, 初獻 宗孫 晟會, 亞獻 璨會, 終獻 提學公派 昌圭.

密直使公 獻官, 初獻 在億, 亞獻 俊會, 終獻 按廉使公派 在澤.

平生會費 納付案内

一人當 20萬圓 以上

本會報가 創刊된 지 어언 15年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애독하여 주신 종친 제위의 성원과 격려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本會報는 宗親들간의 우호증진과 崇조정신의 양양을 목적으로 막대한 경비를 들여 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비는 宗親들이 내주시는 통상회비 년2만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6월부터는 평생회비제를 만들어 1인당 2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자기 평생동안 회비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宗親들의 참여를 기대

합니다. 宗報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종친들의 喜悲愛樂의 소식을 담아 알림으로써 종친들간의 거리를 좁혀 주는 가교역할을 하며, 祖上님들의 자취를 발굴하여 밝히므로서 우리 조상들의 일을 바로 알고 본받음으로써 崇祖精神을 북돋아 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아 가계에 어려움이 더하겠지만 後孫들을 위한 사업임을 인식하시고 誠意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상회비는 20,000원 입니다.

按廉使公 諱士廉 時祭奉行

지난 11월 4일(음 10월 5일)은 按廉使公의 시제날이다. 그런데 이날은 按廉使公派 翼元公派 書雲觀正公派 三派가 다 모인다.

이 날 按廉使公 時祭를 봉행하기 전에 按廉使公과 翼元公의 아버지 領三司公 諱天和 할아버님 貞簡公 諱永煦의 壇墓에 먼저 시향을 봉행하고 按廉使公의 시제를 봉행한다. 그런고로 三派의 후손이 참례함으로써 제관이 많다. 더욱이 큰댁 按廉使公派에서도 많이 참례를 하여 분위기가 더더욱 和睦하다.

三대의 향사가 끝나면 이어서 按廉使公의 子 諱瓘 少尹公의 시제를 봉행하면 이날의 享祀를 마친다.

이 날 享祀에 獻官은 다음과 같다. 貞簡公 獻官, 初獻 翼元公派 吉會, 亞獻 按廉使公派 鳳默, 終獻 密直司使公派 溶日. 領三司公 獻官, 初獻 按廉使公派 圭會, 亞獻 翼元公派 尚默, 終獻 按廉使公派 在元. 按廉使公派 獻官, 初獻 按廉使公派 章會, 亞獻 提學公派 相喆 終獻 按廉使公派 在國.

少尹公派 獻官, 按廉使公派 斗會, 按廉使公派 聖會, 翼元公派 泰英.

五萬圓: 관호(書), 상원(副), 세용(翼), 기성(翼), 율희(翼), 관호(書), 명순(按).

三萬圓: 동식(翼), 천희(文), 세영(미상), 청지(미상), 희석(翼), 철식(翼), 정희(翼), 선묵(典), 윤식(翼), 재광(郡), 수돈(미상), 용민(미상), 정희(翼), 광석(미상), 영수(翼)

計 1,200,000원

정정 회보 57호 찬조자명단중 수정(미상)을 수정(翼)으로 정정합니다.

忠烈公享祀時 誠金者名單 (1997, 11, 8)

一百萬圓: 相勳(提) 大宗會 會長

三十萬圓: 泰亨(翼) 大宗會 名譽會長

二十萬圓: 翼元公派宗會, 安養文英公派宗會, 按廉使公派宗會, 郡事公派宗會, 居昌郡 宗親會, 大邱宗親會

五萬圓: 泰賢(翼)삼척, 開城尹公派宗會, 智植(翼)서울, 康植(翼)서울, 在龍(郡)서울 목동, 提學公派宗會, 淸州宗親會, 聲秀(郡)義城沙村, 二男(郡)康津, 英植(翼)安東, 春應(提)釜山, 仁川宗親會

三萬圓: 洪植(按)青陽郡 木面, 溶日(密)淸州 上黨區, 泰煜(提)서울 서대문구, 在起(翼)수원, 鍾秀(都)서울 광진구, 在冕(翼)대전, 容斗(提)천안, 昊泳(翼)義城 龜溪, 成植(翼)안동, 泰正(提)서울 목동, 世默(郡)서울 목동, 在燦(郡)대구, 憲默(典)서울

二萬圓: 炯植(翼)태백시 장성1동, 燦榮(開)태백시 동점동, 浩爽(都)의성, 점곡 송내리, 京鏞(郡)강진, 錫會(翼)안동, 泰勳(翼)부산, 先會(翼)부여, 相煥(提)천안, 源會(翼)김포, 大植(翼)안동

一萬圓: 昌植(翼)영주, 泰秀(翼)안동.

計 3,010,000원

협조해 주신 종친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訃音

* 按廉使公 21代孫 泰禧 大人 伯卿께서 老患으로 1997년 12월 20일(음 11월 21일) 오전 11시 자택에서 별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嗣子 泰禧, 泰秀, 泰球, 泰爽.

會長團 會議 開催

12월 5일 會長團會議를 汝矣島 63 빌딩 회장님 사무실에서 개최하였다. 회의 안건은 지난번 조치원에서 개최한 이사회 의안 건 처리사항과 앞으로 대총회의 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토의하였다. 이에 중요사항으로는 그동안 위선사업과 영선사업 관계로 文稿事業을 한동안 못하여 대총회 운영

이 곤란한 형편임으로 자그만 사업이라도 전개하여 대총회 운영에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에 일치하고 98년 年初에 우선 고문단회의를 개최하여 高見를 청취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전개키로 결의하고 산회하였다.

勿溪書堂 稷日 參席

勿溪書堂은當初 勿溪書院을 철폐한 후 地域儒林에서 애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書堂을 세워 勿溪書院의 맥을 이어 왔던 것이다. 이 물계서원에는 우리 中始祖이신 忠烈公과 충렬공의 玄孫 楊若齊 九容 兩位分을 配享하여 왔었으나 1868年 大院君의 書院撤廢令에 따라 廢享되고 지금은 醴泉儒林主管으로 書堂을 마련하여 옛 書院을 상기하며 追慕行事로 稷日을 정하여 每年陰 12月 5日 儒林어른들과 우리 문중 중인들이 모여 하루를 즐기며 옛날을 追慕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大宗會 斗會 副會長님과 文溫公派 副會長인 琮會 賢宗이 참석했는데 영남지방 중인 10여명이 참석하여 유림으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유림측에서는 우리 忠烈公 할아버님이 主壁이시며 嶺南의 인물이요, 尊重하는 분이신데 우리 문중에서 소홀함을 극히 서운히 생각하고 있음이 역역함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 할 수가 없어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지난 12월 9일(火) 오후 6시 연세 대학동문회관에서 대총회 이사 이시며 전 제학공과 회장인 松堂 相喆 선생 詩文集發刊記念會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에 대표적인 詩題 2首를 소개한다.

晚秋
楓染千山畫幅開 清光紅影共沈杯
家家酒熟黃花發 夜夜霜寒白雁來
物色漸衰三巨柳 冷波先襲永南臺
前春過作今秋晚 始覺人間歲月催

祝韓國經濟發展
純厚心情各守眞 公營私業日新新
雄飛自負三韓族 大會同參四海人
世界通商何必利 遠方修繕莫非親
今回博覽由經濟 民力伸時國力伸

천산에 물든 단풍 한 폭의 그림 같고 푸르고 붉은 그림자 술잔에 와 잠겼네
집집마다 술익고 국화꽃이 피었고 밤마다 찬서리 내리니 기러기는 오는도다.
늘어선 물색에 삼거리 버들 쇠해가고 냉정한 한파는 영남루를 먼저 엄습하네
지난봄이 어제 같은데 올 가을도 늦었구려
인간의 세월 재촉함을 비로소 알겠노라.
* 1989, 10, 27 天安 文化祭漢詩白日場에서 壯元入賞

순수한 심정으로 각기 진실을 지켰으며 공영과 사기업이 날로 새롭고 새롭다.
웅비의 기상으로 삼한의 민족성을 자부하였고 엑스포대회에는 세계사람이 동참하였네
세계각국들 통상에 어찌 이권만 다들소냐?
먼나라들도 수교하면 친해지지 않겠는가?
이번의 박람회는 경제정책에 연유한 것이니
민력이 신장하면 국력도 따라서 신장한다.
* 1993, 10, 11 大田 엑스포 世界博覽會漢詩白日場에서 壯元入賞

文化行事

향리송(鄉里頌)
忠南 安市 竝川面 松亭里(宣祖朝 安岳郡守 竹溪公 出生地)
地球村 時代에 점차 鄉里를 잊어가고 있는 現實이 안타까워 平凡한 鄉里이지만 애항심을 가지고 적어 보았습니다.
提學公派 凡山 金泰煜



宇宙一星地球村 東邦禮域朝鮮國
넓은 우주 가운데 하나의 떠돌이 별인 지구촌에
예의를 숭상하는 동쪽의 아침햇살이 고운 나라
弘益人間開國是 悠久歷史五千年
인간을 크게 이롭게 하자는 숭고한 국시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문화민족
淸風明月忠淸道 天下吉地天安鄉
청풍명월을 자랑하는 충청도에
하늘아래 가장 살기좋은 천안 고을
太白大幹車嶺脈 四通八達要衝地
태백산맥의 큰 줄기인 차령산맥이 뻗어있고
그 지세는 사통팔달한 산업관광 교

통의 요충지
己未聖火始竝川 金忠武公誕生處
기미년 독립성화를 높이 올린 아우 내는
진주목사 김충무공의 탄생한 곳이다.
護國先烈數不舉 名實相符忠節鄉
호국 선열들은 그 수를 헤아릴수 없으니
이름 그대로 충의와 절개가 드높은 고장
沙亭江亭又松亭 生居十勝即此地
사정 강정 송정의 삼정마을이 있으니
정감록에 명시된 생거십승지중 한 곳이다.
山紫水麗松亭里 安東金氏世居洞
그 중에도 산 좋고 물 맑은 송정 마을은
대대로 이어온 안동김씨의 세거지라.
梅峰山頂白雲流 點點佳景神仙圖
매봉산 위로 흰 구름이 흘러가고
웅기종기 펼쳐진 마을 풍경은 신선 그림이라
案山群鹿閑望天 藥師庵泉恒湧出
마을앞 안산엔 사슴떼들이 한가히

노닐고
약사암의 약수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네
龍池傳說昇天處 潛龍再臨乞期待
옛날에 청룡이 승천한 용못이 바로 이곳이니
새로운 큰 인물이 태어나길 손모아 기대하네
春風秋雨歲歲同 到處先塋陰佑孫
봄바람 가을비는 해마다 변함이 없고
도처의 선영들은 후손들의 안녕을 돌봐주네
永生不滅凡民願 生老病死即天道
영생불멸을 범인들은 기원하나
남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요.
世上萬事如浮雲 速棄速棄貪瞋痴
세상만사 흘러가는 구름과 같으니
속히 버릴지어다 탐심과 증오와 투기를
天惠滴下吾衆生 仰天不愧行常道
하느님 은총을 받아 태어난 우리들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몇몇한 길을 가자
患難相恤守良俗 現居鄉親萬世榮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양속을 지켜
향리에 살고 계신분들 영화가 끊어 없어라.

華 燭

* 大宗會 顧問이신 思興 賢宗의 아들이 俊의 結婚式을 12월 6일 예술의 전당에서 많은 賓客이 參席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였다.
* 지난 11월 23일 大邱宗親會 理事인 慶會 賢宗의 長男 관태군의 결혼식을 연세대학 동문회관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 지난 12월 20일 大宗會 理事인 光道 賢宗의 女婚을 강남 서울 상록회관 무궁화홀에서 많은 하객의 축복속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地域宗親會 登錄促求

지난번 58호 會報에 지역중친회를 대총회에 등록을 요망하는 公告를 내고 그 후 대총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몇몇 지역 중친회에 등록서류를 송부하였으나 12월 31일 현재 淸州(槐山, 曾坪), 大田, 大邱, 瑞山宗親會만이 登錄書類가 접수되고 나머지는 아직 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新年度 대총회 운영계획에 차질이 올것으로 사료되어 다시 촉구하오니 98년 1월 중으로 서둘러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등록서류를 받지 못한 지역중친회는 연락해 주시면 소정 양식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組版 印刷 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컴퓨터 組版으로 技術革新

本社 社屋 全景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五大特徵

- 創立 40週年의 歷史와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 컴퓨터 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 編輯, 裝書, 出版, 印刷, 製冊 등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發見하는 30餘年間 勤續한 技能者 多數確保
-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碩積 便宜提供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의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의 收單, 裝書, 編輯,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3, 256-1263
FAX (042) 253-9891 白宅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按廉使公派 廣基宗中

충남 천안시 병천면 도원리 廣基宗中은 지난 11월 2일(음 10월 3일) 이곳 入鄉祖이신 參奉公諱公彦의 아들 軍자감정공 諱勳과 손자 침정공 諱孝吉, 증손 도사공 諱沃, 5대손 諱錫과 外先祖 善山柳公 2位の 歲一 享祀를 齋室에서 엄숙히 봉행하였다.

이 날 初獻은 宗孫 永植, 亞獻은 權會, 終獻은 弘植 賢宗이 각각 獻爵하고 大祝은 聖會 賢宗이 하였다. 또한 이날 享祀를 마친 다음 老隱亭文化財 지정에 큰 기여를 한 聖會 弘植 두 賢宗에게 廣基宗中에서 공로패수여가 있어 문중의 敦睦을 과시하였다.

許蘭雪할머님 筆寫本 詩集 발견

許蘭雪할머님은 忠烈公의 玄孫 綏書雲觀正公의 8代孫 誠立의 配位이다. 그 유명한 許蘭雪軒의 필시본 시집인 蘭雪意가 발견돼 난설헌 시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학계에서 떠들썩 하다. 동아일보 97년 10월 24일 기사를 附載한다.



—大邱 宗親會 靑壯年會 發行
「宗婦」에서 傳載—

都評議公 宗婦 金在教氏

安東金氏 都評議公派 21대 종부 金在教씨(43)는 시집온지 다섯 달만에 시어머니를 잃고 지금까지 종택을 비워 둔 채 대구서 살고 있다.

남편의 직장으로 객지에 나와 있지만 일이 있을 때면 달려가야 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시도 종가를 잊을 수 없는」그런 종부다.

어찌다 차세대의 종부들이 걸어갈 수 밖에 없는 길을 미리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궁금해진다.

「다음 세대의 종부들은 저처럼 고향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통을 지킬 수 없는 이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전통을 존중하는 종부도 있을 겁니다. 제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마음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일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이러한 金씨의 소망은 항상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가 언제나 다급한 마음으로 달려

갈 수 밖에 없었던 종택은 義城邑을 지나 고운사로 가는 길을 따라 자동차로 10여분 달리면 나타나는 點谷面 沙村 安東金氏 집성촌에 자리잡고 있다.

동네 어귀에는 「안동김씨 입향 600년」을 기념한 碑가 있고 安東 檜谷에서 이 곳으로 처음 터를 잡은 子瞻(都評議公 九鼎의 아들)이 심었다는 상수리나무 등이 이제 울창한 숲을 이루어 반기지만 그녀에게는 웃어른의 손짓처럼 느껴진다.

안동김씨의 분파인 이 마을 전체는 1백 여 호이던 것이 이제 70호에 불과하지만 대과 12명, 소과 28명 등 총 40명이 문과 급제자를 내어 전통을 빛낸다.

이 중 학문으로 명성을 내던 金光粹는 연산의 폭정에 입신의 뜻을 버리고 이 곳 고향에서 「詠歸亭」을 지어 후학에 열중했다. 또한 의병장을 많이 벌던 나라 사랑의 정신과 정의감이 남다른 집안이다. 金光粹의 외손자인 西樞柳成龍도 바로 외가인 이 곳에서

인 물 소 개

文英公宗會 會長 道演



여기 소개해 드리는 賢宗은 文英公宗會 會長에 피선되었다.

道演 賢宗은 忠烈公 23代孫 按廉使公 19代孫으로서 일찍이 漢學을 수학하고 지역학교의 기성회장으로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각종 사회단체, 라이온스 클럽, 鄉校의 典校 등에서 크게 활약하여 사회에 봉사한

분이시다. 근래에는 노인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대한노인회 지회장을 맡는 등 살아져 가는 노인에 대한 관심을 사회에 불러 일으키는데 공헌하고 있다.

道演 賢宗은 금년에 만 76세로 老軀이시며 현재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에 살고 계시다. 그의 履歷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47년 증평고등학교 기성회장, 1955년 증평여자중학교 기성회장, 1962년 증평읍 의회 부의장, 1965년 증평 라이온스 클럽 7대회장, 1983년 라이온스 클럽 309지구 부총재, 1985년 청안향교 전교, 1989년 증평단군전봉찬회장, 1991년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부지회장, 1995년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지회장.

翼元公 20代孫 鳳會 賢宗



金氏 문중의 영광이며 나라의 큰 보배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의 약력을 소개한다.

1984년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1992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1996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불교학), 1970년 경상북도 교육위원회(행정주사보), 1990년 교육부장학편수실, 감사관실, 과학교육국(행정사무관), 1993년 교육부 보통교육국(행정사무관), 1995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서기관 대우), 1996년 한국 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부위원장(현재), 1997년 교육부 고등교육실 대학재정과(서기관, 현재)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재무회계실무총람(1994. 법제연구원), 논문은 한국교육방송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1992. 석사학위논문)

韓國古書協會長 在甲



여기 紹介하는 宗親은 郡事公 19代孫인 在甲 賢宗으로 現 韓國古書協會 會長으로 종로구 인사동에서 古書籍 簡札專門 好古堂을 경영하고 있다. 앞으로 古文集 번역에 많은 協力을 해주실 분이다.

고서에 관심이 있거나 相談이 必要하신 분들은 大衆회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출일기」 여중생 작가 혜정양



지난 58호 회보에 소개한 女中生の 장편소설 「가출일기」를 출간한 화제를 게재한 후 책자를 10여권을 송달해왔기로 몇분에게 책자를 전달하였으나 앞으로 이 소녀의 學究에 도움이 되도록 전국 종친들의 協贊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大衆회 전화 02)244-3717번으로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임진왜란등 어려운 고비에서도 불타지 않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있는 晩翠堂 전경.

태어났다.

종부는 한 번도 마음 편히 문중 어른을 대할 수 없다고 터놓는다. 종부로서 종택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죄스러움이다.

제사를 모실 때면 음식을 준비한 보따리를 들고 연년생인 아이를 하나는 업고 하나는 걸리면서 버스길로 왔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할 수 없었다.

「지금 자가용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아이들 다 컸지요. 길 좋지요.」이렇게 와서 제사 준비를 하고 모시다 보면 10일은 죽히 종택에 머물러야 한다. 善山 金씨인 그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온 것은 24세 되던 해다.

다음호에 계속